

# 도자기 디자인에서 읽어낸 문화·역사·예술 이야기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그릇에 숨겨진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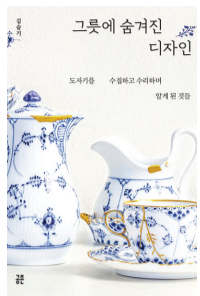
김슬기 지음

“예술가에게 도자기는 평면 또는 입체의 도화지나 다름없다.” 이는 오랜 세월 다양한 모티브가 도자기의 형태 또는 그림을 통해 구현돼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유럽 도자기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중국 청화백자에 새겨진 그림이다. 로열코펜하겐 초기 블루 플라티드 제품 속 문양이 중국 명나라, 청나라 도자기에서 비롯됐다. 유럽에 수출된 청화백자의 대표 무늬는 산수문(山水紋)이었다.

산수문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관련이 있다. 농경문화에서 자연으로 대변되는 산수는 생존과 직결됐다. 신적인 존재가 깃든 절대적 대상으로 생로 병사, 풍흉(豐凶)을 결정했다.

초월적 힘을 지닌 자연을 도자기에 담아 곁에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산수를 그림으로 곁에 둔다는 것은 정신적 안정과 풍류를 누리며” 수준 높은 취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릇에 숨겨진 디자인

김슬기 한국도자기수리협회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칠공)다. 홍익대와 동 대학 디자인 전문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도자기 수리 공방 ‘금여성 1929’를 운영하고 있다.

김슬기 기능자가 펴낸 ‘그릇에 숨겨진 디자인’은 디자인을 토대로 한 문화와 역사, 예술 이야기다. ‘도자기를 수집하고 수리하며 알게 된 것들’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사소한 자료와 조각들을 붙여 세 계사와 문화사를 읽어낸다.

저자는 그동안 디자인을 수집, 수리하며 도자기를 이해해왔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도자기에 대한 관심을 넓혀가는 중 덴마크 도자기인 로열 코펜하겐의 디자인에 매료됐다. 책은 도자기 디자인 역사를 개괄하고 로열 코펜하겐 디자인을 소개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그리고 코펜하겐 디자인의 특징과 문화 등을 알려주고 도자기를 수집, 수리하면서 느낀 단상 등을 풀어낸다.

그런데 왜 로열 코펜하겐일까. 저자는 다양한 요소를 꼽는다. “자연을 주제로 한 문양과 그림을 기원으로 하면서” 새롭게 재해석해 고급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250년에 걸쳐 하나의 스타일을 진화시켜 온 점에 매료됐다.

기본적으로 저자는 ‘입체 화면의 화폭’인 도자기

에 표현되는 디자인은 무궁무진하다고 전제한다. 시대에 따라 형태를 비롯해 색상이나 질감, 문양 등이 달라지는데 그 안에 깃든 상징도 변화한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도자기 디자인에 대하여’는 도자기 역사를 개괄한다. 현존하는 고대도기부터 우리나라 고대도기 그리고 그 안에 투영된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소개한다. 청동기시대 무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화되는 경향, 특히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사한 모습을 띠는 이유 등이 기술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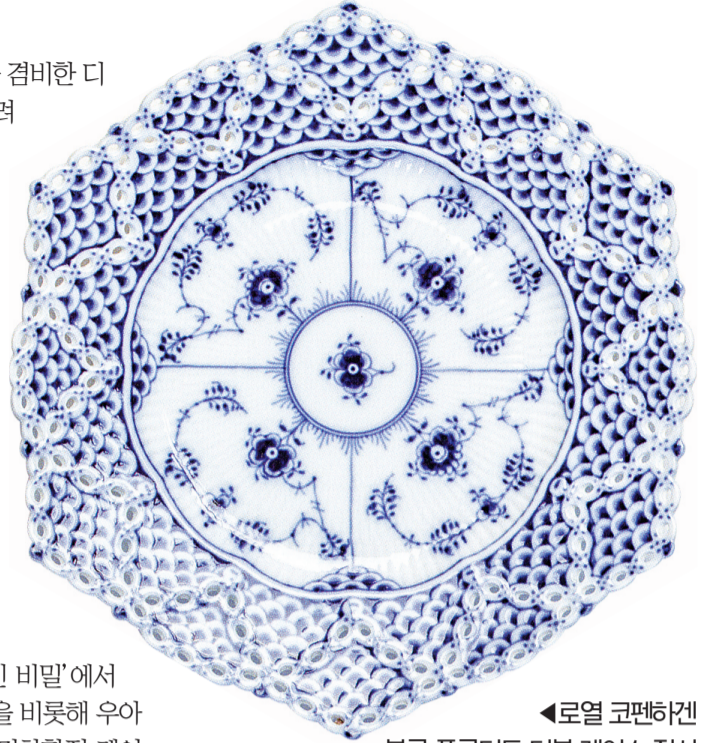
백자 청화 사슴 무늬 접시 <네덜란드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소장>

12세기 고려청자의 미와 실용성을 겸비한 디자인에 대한 상찬도 있다. 저자는 고려 ‘청자 상감 구름 학 무늬 매병’(국보 68호)을 예로 든다. “동그란 무늬 안팎의 학은 다차원의 우주를 상징하고 하단의 연꽃 문양은 땅을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2부 ‘문명의 교류에서 탄생한 도자기’는 덴마크 도자기 브랜드 로열 코펜하겐의 역사와 특징을 언급한다. 저자는 “로열 코펜하겐은 1777년부터 회색 백자에서도 선명한 푸른빛을 표현해냈다. 코발트 블루(cobalt blue)라는 단어가 처음 영어에 나타난 해도 공교롭게 1777년이었다”고 본다.

3부 ‘도자기 디자인에 담긴 비밀’에서는 상서롭거나 고상한 문양을 비롯해 우아한 문양 등을 이야기한다. 기하학적 레이스의 미가 두드러진 제품으로 블루 플라티드 더블 레이스 접시를 예로 든다. 또한 ‘분청사기 상감 모란잎 무늬 토티 테두리 접시’ 가장자리 레이스가 주는 균일하고 섬세한 디자인도 만날 수 있다.

마지막 장 ‘도자기를 수집하고 알게 된



로열 코펜하겐 블루 플라티드 더블 레이스 접시

것들’에서는 수집가와 수리사로 지내오면서 느낀 소회를 말한다. 저자는 도자기를 수집하며 수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이유, 특히 도자기 폐기물 재활용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이 모든 과정은 도자기 등의 그릇이 인간의 삶과 세계에서 어떤 상징을 내재하는지로 수렴된다.

한편 200컷의 다채로운 이미지는 보는 맛을 선사한다. <공존·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길목의 무늬

김성훈 지음

지난 2022년 목포문학상 남도작가상 수상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한 김성훈 작가가 첫 소설집 ‘길목의 무늬’(문학들)를 펴냈다. 명지대에서 문예창작학을 공부하고 목포대 국어교육대학원에서 석사를 졸업한 김 작가는 현재 전남대 문화재협동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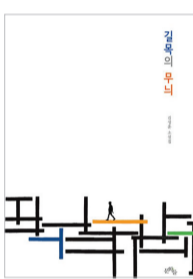
창작집에는 여수를 배경으로 쓴 ‘정오의 끝자리, 빛’,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이야기를 다룬 ‘홍콩빠 이모’, 세월호 생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모티브로 한 ‘결’ 등이 수록돼 있다.

작가의 소설에 대한 관심과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도 있다. ‘소설을 쓰기 시작한 사람’은 소설이란 무엇이며 왜 소설을 쓰는가에 대한 작가적 의식이 투영된 작품이다. 여성 화자가 대학 선배의 등단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를 하러 가면서 떠올리는 회상 등이 주 내용이다. 서울에서 강사생활을 하다 30대 초반 고향 해남으로 내려온 그는 지역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대학원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게 된 것은 그런 연유다. 또한 문화재협동과정 공부하는 지역의 설화를 조사하거나 지역 자원과 연계된 시민 기자 활동을 하며 자연스레 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 임문하게 됐다.

김 작가는 “시골이나 농촌은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수익창출을 기대할 것이 없다”며 “해리티지 사업 쪽에 관심이 많은 것은 문화와 유산 등을 매개로 지역과 연계된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향후 그는 해남의 동학을 모티브로 한 소설을 구상하고 있다. 그는 “자료에 따르면 해남에서도 전부가 있었다. 우수영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지만 동학 당시에는 동학도들이 처형을 당한 공간이다. 해남, 동학과 연계된 소설을 쓰기 위해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문학들·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

장영인 지음

요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나씨와 관련된 뉴스들이다. 가해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궁금증 외에도 오씨의 사례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걸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지식을 다룬 책이 출간됐다.

젊은 세대와 호흡하는 ‘짱뽕’ 장영인 변호사가 펴낸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은 삶의 중요한 상황에서 당당한 대처를 하기 위한 핵심 실천 법률 상식을 다루고 있다.

1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에어팟 끼고 일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출근 브이로그 찍어도 되나요?”, “회사 몰래 투잡을 뛰면 불법인가요?” 등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2부 ‘집을 구할 때’에서는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계약시 바로 사용하기 좋은 특약 조항들을 제공하고 3부 ‘결혼 또는 이혼을 준비할 때’에서는 동거, 약혼, 결혼, 비혼 또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갖는 것 까지 각각의 선택이 가져오는 법적 차이를 설명한다.

4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때’에서는 주의해야 할 쟁점을 가이드라인처럼 제공하고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부분까지 설명을 덧붙였다. 추가로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 아르바이트 직원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을 부록에 수록했다. <북하우스·1만8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K민주주의 내란의 끝

전우용·최지은 지음

12·3계엄과 맞물린 내란 시도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을까? 향후 내란 주도자들이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뒤따르는 양당과 세력이 잔존하는 한 위험성은 남아 있다. 또한 여전히 계엄을 찬성하면서 민주주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자신들 입맛에 맞게 반국가세력을 규정하고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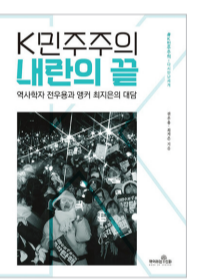
계엄사태 이후 역사의 흐름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K민주주의 내란의 끝’은 역사학자와 앵커의 대담집이다.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등을 역임한 전우용, 오마이TV 앵커와 TBS 아나운서를 거쳐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전략커뮤니케이션이론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언론인 최지은이 그 주인공이다.

대담은 주제 ‘민주주의란?’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반대, 독재체제’, ‘양당파와의 싸움’, ‘계엄’,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화는 민의 수준을 높여야 완성’이라는 다섯 장으로 구성된다. 각 장에서 최지은 아나운서가 주로 질문을 건네고, 이에 대해 전우용 역사학자가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책 말미에는 22년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윤석열 임기 일지’도 방대한 분량을 할애해 수록했다. 임기 일지별로 각각 국내 정치·안보·법 사건과 경제·사회·문화·교육 사건, 해외 사건들을 일람한다.

계엄 사태가 시작됐던 12월 3일 그날은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문을 낭독했던 오후 10시 23분부터 시, 분 단위로 긴박했던 사건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참된 민주주의의 시작이 내란 사태의 종식이며, 부정적 역사를 책으로 아카이빙하는 일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신호탄이 될 것임을 역설한다. <책이라는신화·1만7000원>

/최원민 기자 rubi@kwangju.co.kr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